

HE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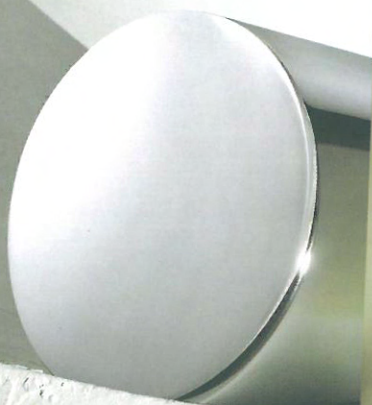
트루 프리미엄 멤버십 매거진 HEREN IS LOVE

August 2013



Architects' Travel Note

8인의 뷰티 레이디, 신사를 말하다
프로방스 현지의 홈메이드 정찬
모빌이라는 혁신을 이룬 알렉산더 칼더
Outdoor Furniture Update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 189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조각가인 아버지와 화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남. 1931년 움직이는 조각 '모빌(Mobile)'을 탄생시켰고 1932년 움직임 없는 조각의 이름으로 '스태빌(Stabile)'을 채택함. 1967년 몬트리올 박람회, 1969년 미시간 주 그랜드래피즈 미술관 등 세계 각지에 기념비적 조각을 선보임. 1976년 사망.

The Great Calder

한 줄로 설명되는 위대한 예술가들일수록 제대로 알 기회가 줄어들다는 것은 얼마나 통탄할 만한 일인가. 리움에서 열리고 있는 알렉산더 칼더전은 현대 조각사에 가장 의미 있는 발명을 이뤄낸 그의 작품세계를 찬찬히 되짚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21개의 하얀 일사귀를 들고 있는 칼더, 1954년
Courtesy Calder Foundation, New York / Art Resource, New York
© Agnes Var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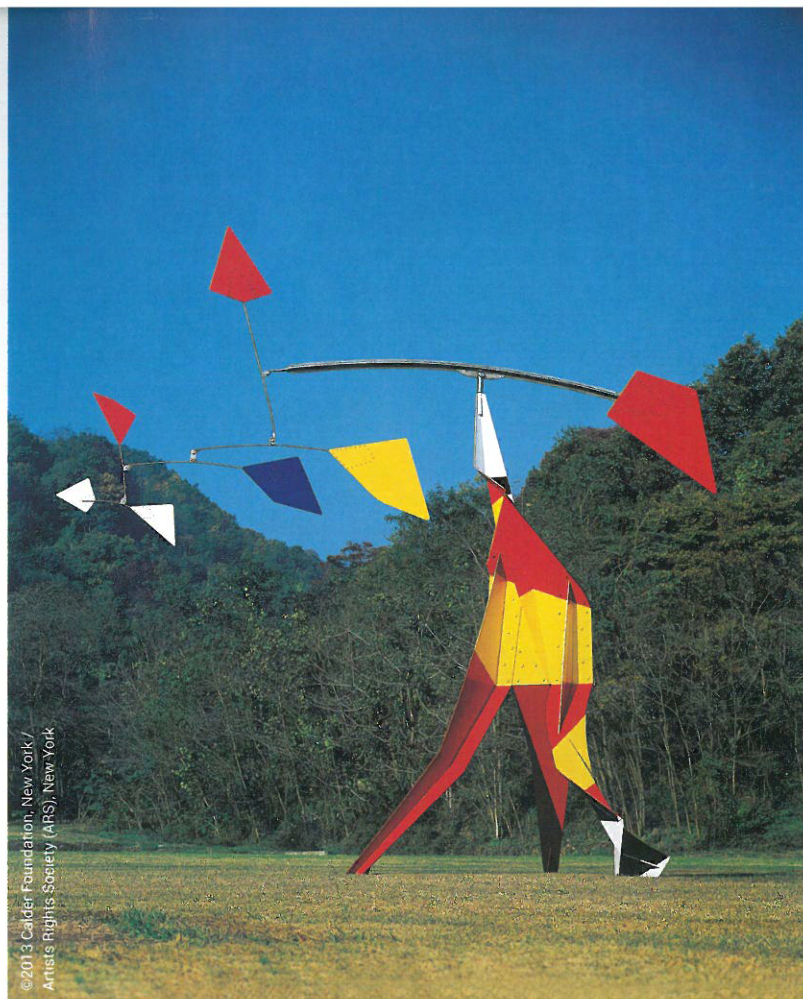
“진정 진지한 예술은 단순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법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나는 내 모빌 조각의 모든 요소들을 움직이게 하려 노력한다. 관건은 움직임을 조화롭이 하고, 그럼으로써 아름다움의 새로운 가능성에 도달하는 것이다.”

1932년 3월 8일 알렉산더 칼더의 글 '움직임: 모빌 조각에 관하여' 중

지금 리움의 앞마당엔 알렉산더 칼더의 '거대한 주름(Grand Crinkly)' (1971)이 놓여 있다. 알렉산더 칼더의 대규모 회고전을 기념하기 위해 미술관이 수장고에 보관하던 작품을 다시 꺼내놓은 것이다. “이 작품을 다시 보게 되니 반갑군요. 프랑스의 할아버지 스튜디오 언덕에 설치되어 있던 작품이지요. 여러 번 소장처가 바뀌었지만, 볼 때마다 늘 식구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알렉산더 칼더의 외손자이자 칼더재단의 대표인 알렉산더 S.C. 로위가 감상에 젖은 듯 작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전 세계 유수의 미술관 수장고가 들썩였음은 물론이다. 풍피두와 구겐하임, MoMA가 소장한 칼더의 회귀작을 옮겨 왔고, 1945년까지 칼더의 창고에 보관되다 4년 전 로마에서 처음 빛을 본 'Scarlet Digital' 역시 대중에게 두 번째로 공개된다. 로위의 말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열리고 있는 칼더 관련 전시만 21개. 지금도 지구상의 수많은 미술관들은 그의 작품을 공수하기 위해 첩보에 가까운 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치밀한 작전은 잦아들지 않을 듯하다.

이번 전시는 '알렉산더 칼더'라는 예술가를 처음부터 다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다. 칼더를 단지 '모빌 아트'의 창시자' 정도로 피상적으로 알았거나, 북유럽풍 인테리어에 방점을 찍는 그럴듯한 설치 작품 작가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면 더욱 강렬한 진폭을 경험할 것이다. 리움과 칼더재단이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가장 중점을 둔 것 역시 '칼더의 전 생애에 걸친 작업을 소개하는 것이며, 그가 어떤 혁신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전시는 칼더의 연대기별 주요 작품을 보여주는 순차적인 구성을 띠는데, 입구에서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건 바로 그가 그린 유화다. 당연히 '칼더가 그림을!'이라는 반응이 따라온다. 공학을 전공한 그가 1923년 '아트스튜던트리그'에 입학한 이후 그렸던 그림들로 거대한 규모의 선박, 운동 경기장 등 '움직임'이나 '스케일'에 대한 그의 오래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고백하건대, 전시장을 통틀어 가장 흥미로웠던 건 그 다음 단계의 작품들인 '동물 드로잉'과 '철사 드로잉' 섹션이었다. 철사를 숨쉴 줄기 구부려 한 남자의 움직임을 표현한 '투포환 선수'(1929)를 봤을 때의 충격이란, 마치 '움직임 에너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기분이었을까. 일견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 철사 조각이야말로, 늘 '움직임(movement)'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던 칼더가 '공간'을 그림의 배경으로 삼았던 첫 번째 작품인 것이다. 물론 20세기 미술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기록되는 '모빌(Mobile)'의 탄생 과정도 목도할 수 있다. 철사 조각으로 서커스의 무대를 재현해내던 그가 당시 추상미술의 선구자였던 몬드리안을 만난 이후, 모든 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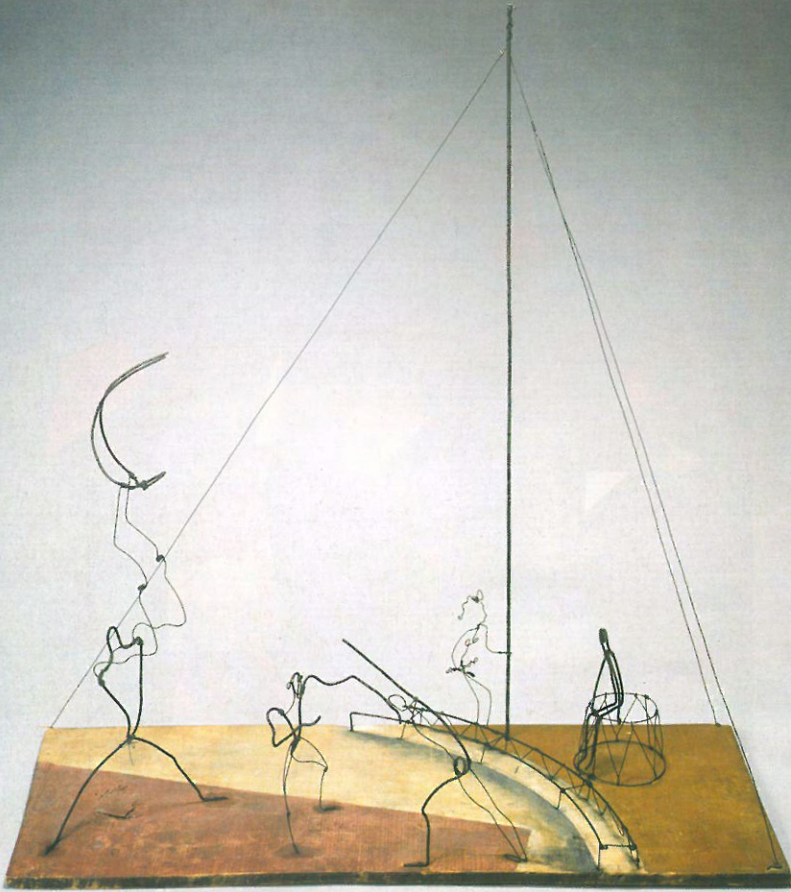
©2013 Calder Foundation, New York /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거대한 주름(Grand Crinkly), 1971 / Sheet metal, rod, bolts, and paint / 770×865×375cm / Leeum, Samsung Museum of Art

을 없애고 추상으로 돌아서는 과정은 더없이 드라마틱하다. '과정'이 아니라 '순간'이라 표현하는 게 맞을 만큼 섬광 같은 깨달음이 있는 이후, 그의 작품엔 단순화된 철사와 공이 등장하고, 우주와 움직임에 대한 성찰이 깃들기 시작한다. “조각이 움직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한 직선운동, 회전운동이 아니라, 서로 다른 유형의 여러 움직임들의 속도와 진폭이 하나의 전체적인 결과를 형성하는 움직임 말이다. 색채나 형태를 구성할 수 있듯이 움직임도 구성할 수 있다.” 1933년, 칼더의 확인은 그가 전 생애에 걸쳐 남긴 작품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후 그의 작품은 덩치가 점점 커졌으며, 쥘러가 변주됐고, 조형을 균형감 있게 배치하는 노하우를 체득한 이후엔 위에서 아래로 늘어뜨리는 '모빌(Mobile, 움직이는 조각)', 조각의 일부를 받침대로 사용하는 '스태빌(Stabile, 정지된 조각)'의 형식이 확립된다. 이 전시가 감동적인 건 그의 작품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려는 욕심'보다는 '움직임과 우주의 원리에 관한 호기심을 스스로 납득하려는 한 예술가의 순수에 가까운 노력'이 읽히기 때문이며 그 진화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알렉산더 칼더는 인류에게 '움직임'을 손에 쥐듯 보여주는 최초의 예술가가 됐다. 날아다니는 나비 같기도, 혹은 팔을 늘어뜨린 나무 같기도, 그저 공기 중에 부유하는 미니멀리즘 조각 같기도 한 칼더의 작품에서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기로 힘들다. 장 폴 사르트르 역시 그의 '모빌'에 이런 찬사를 남기지 않았다. “모빌(Mobile)은 백조와 같은 우아한 움직임을 지닌 '물질과 생명의 중간쯤'이다”라고 **한**

editor 박지혜 cooperation 삼성미술관 리움

* <Calder 움직이는 조각, 알렉산더 칼더>展은 7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열린다.



©2013 Calder Foundation, New York /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나는 파리로 떠나기 전 봄에,
두 해에 걸쳐 바넘&베일리와
링글링 형제가 뉴욕에서 공연했을 때
이미 대규모 서커스를 연구한 적이 있고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관찰했다.”

서커스 장면(Circus Scene), 1929 / Wire, wood, and paint /
127×118.7×46cm / Calder Foundation, New York

뉴욕에서 잠시 삽화가로 일했던 칼더는 서커스 삽화를 그리기 위해 공연을 관람하며, 곡예사와 동물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에 매료된다. 파리로 이주한 그는 나무토막과 일상적 재료들을 철사로 묶어 곡예사와 동물, 전차 등을 등장시켜 미니어처 서커스를 만들어낸다. 그의 서커스 공연은 입소문을 타고 파리 문화인들 사이에서 유명해진다. 굵기가 서로 다른 철사들로 인물의 동작과 힘의 강약을 섬세하게 표현했으며, 특히 왼편의 곡예사들 중 맨 위에 있는 인물은 세부적 인체 표현을 하지 않고 2개의 단순한 선으로만 표현되어 있다.

Calder's Works of Life

1929

1930

1931

©2013 Calder Foundation, New York /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Untitled, 1930 / Oil on canvas, 91.8×73cm
Calder Foundation, New York

“몬드리안이 그의 성향대로 패턴을 이루어 벽에 붙여놓은 색색의 사각형들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나는 몬드리안에게 이 사각형들을 움직이게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는 반대했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 추상적인 그림을 시도했다. 그러나 2주 만에 조각 재료들로 다시 돌아오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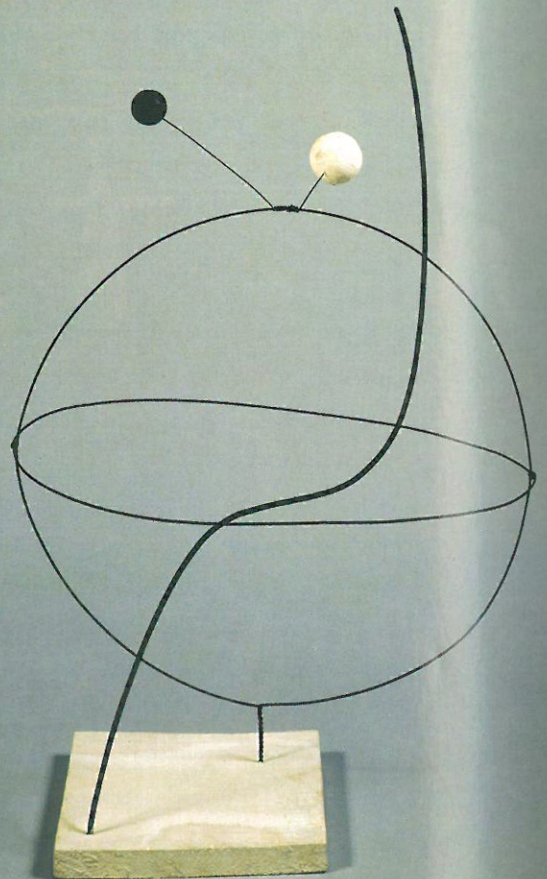
1930년 10월 몬드리안의 작업실에 다녀온 이후 그린 추상회화 작품. 몬드리안의 그림과 꼭 빼닮은 그의 작업실을 방문한 이후 칼더는 2주 동안 추상회화를 그리는 데 몰두한다.

항해(Croisiere), 1931 /
Wire, wood, and paint /
94×58.4×58.4cm /
Calder Foundation, New York

“나는 그에게 이 작품들에 어떤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을지 물었고, 그는 즉시 ‘모빌’이라고 지었다. 프랑스어로 이 단어는 움직이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동기(Motive)를 의미하기도 한다. 뒤상은 또한 모티브로 움직이는 오브제의 드로잉을 초대장에 넣고, ‘칼더/그의 모빌’이라고 하라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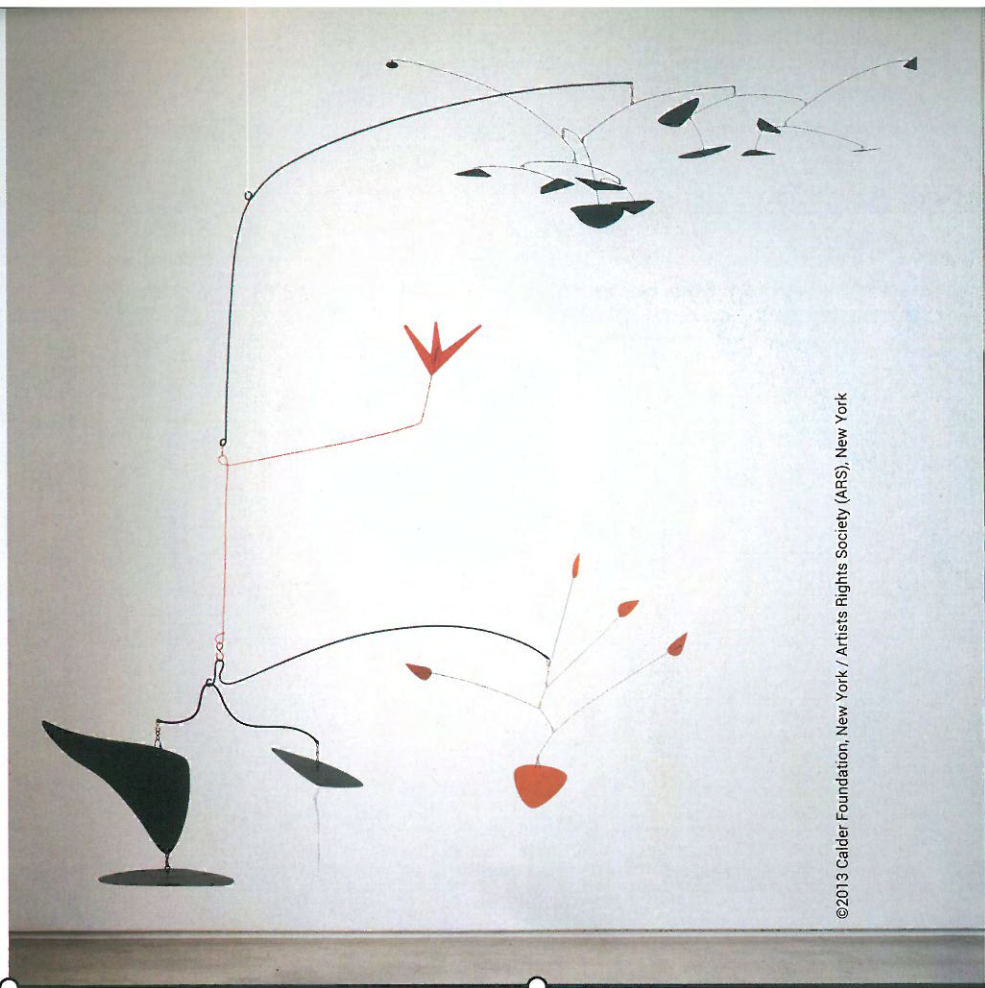
칼더가 자신의 장점이 회화보다는 조각에 있음을 깨닫고 제작한 최초의 추상 조각 작품. 철사로 만든 2개의 원이 수직으로 교차하여 구를 형상화하고, 여기에 흑백의 작은 공이 매달려 있어, 궤도를 항해하는 행성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 당시 작품들은 칼더의 ‘우주’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천체 모형과 유사한 추상적 조각들이 많다.

©2013 Calder Foundation, New York /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주홍색 손가락들(Scarlet Digitals), 1945 /
Sheet metal, wire, and paint / 215.9×241.3×104.1cm /
Calder Foundation, New York

형식이 안정되고 원숙해진 성숙기의 작품. 자연 속 사물의 움직임이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하며 형태가 더 다채로워졌다. “예전에는 밑그림을 끝내고 조각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여러 모양의 철판을 자르면서 작업을 시작한다. 그런 다음 테이블 위에서 이 철판들을 배열하고 이후 색을 칠한다. (중략) 무게중심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균형을 잡아간다. 작품이 자유롭게 매달리거나 회전하게 하려면 이 지점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 모빌은 그저 움직이는 납작한 물체의 연속에 지나지 않지만, 다른 일부에게 모빌은 어쩌면 시와 같은 것일 수도 있다.” 모빌에 대한 칼더의 언급처럼, 물리적인 것과 미적인 것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그의 기술이 점점 화려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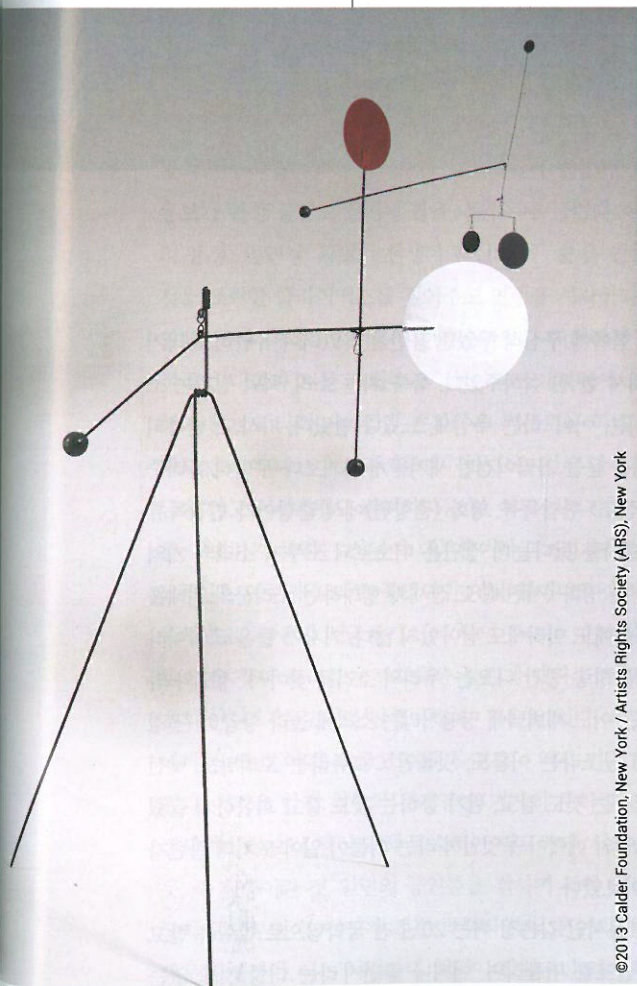


©2013 Calder Foundation, New York /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1934

1945

1969



©2013 Calder Foundation, New York /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Untitled, 1934 / Sheet metal, wire, lead, and paint / 287×172.7×134.6cm / Calder Foundation, New York

“바람에 움직이는 조각일지라도 그것은 기계이며, 미학적으로도 그렇게 생각되어야 한다. 그러나 결코 기계적 요소가 심미적 영역을 통제할 수는 없다. 조악한 기계이면서 훌륭한 조각인 편이 훨씬 낫다.”

칼더는 대기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모빌의 특성을 실려 일찍이 야외에 설치하는 모빌을 구상했다. 이 작품은 그가 모빌을 만들기 시작한 지 불과 2년 만에 코네티컷의 작업실에서 야외 설치를 시도했던 작품 중 하나다. 삼각대 같은 다리를 땅속에 깊이 고정시키고, 상부의 모빌이 바람에 움직이도록 고안했지만 실패하고, 실내용 작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2013 Calder Foundation, New York /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거대한 속도(1:5 중간 모형, Le Grande Vitesse), 1969 / Sheet metal, bolts, and paint / 259.1×342.9×236.2cm / Calder Foundation, New York

미국 미시간 주 그랜드래피즈 시에 설치된 15m 높이의 공공 조각 ‘거대한 속도’를 제작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형. 강철판을 재단해 면과 면을 볼트로 연결하여 형태와 볼륨을 만드는 칼더 특유의 스테빌 제작 기법이 잘 드러난다. ‘거대한 속도’라는 제목은 그랜드래피즈 시, 그랜드 강의 급류지에서 딴 것. 고정되어 있는 ‘스테빌’ 작품이지만, 강렬한 붉은색과 요동치는 형태가 급류의 물줄기를 연상케 한다. 이 작품 이후 미국 주요 도시에 공공 조각 설치가 활성화된다.